5면에서 계속

로 결심하고 1월 5일 그 정문에 접근하였다. 호위경관의 저지를 받고 폭탄 한 개를 던지고는 재빨리 궁성쪽으로 달려가며 나머지 폭탄 두 개를 니주바시二重橋 한복판에 던지고 붙잡혔다. 김지섭은 일본군 근위연대近衛聯隊에 체포되었다가 히비야日比谷경찰서에 인도되어 1925년 8월 동경공소원控訴院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치가야市谷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었으나 1928년에 옥사하였다.

김시현이 상해에서 폭탄제조를 일단 완료한 것은 1922년말에서 1923년 초가 되어서였다. 그렇게 완성된 시계폭탄 등은 36개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시현은 이를 전량 국내로 반입해 거사를 벌일 계획을 세웠다. 폭탄은 대형과 소형 두 종류인데 대형은 무게가 5관이나 나가 아동 하나의 몸무게와 같았다. 그 부피도 그리 작은 게 아니어서 반입방법이 용이치 않았다. 이에 의열단은 이 폭탄을 천진天津으로 옮겨놓고 김시현을 본국에 들여보내 반입 방도를 강구케 했다. 국내에 잠입하는 김시현은 경기도경찰부警察府의 고등계 경부警部로 있는 독립운동자 만동晩東 황옥黃鈺을 이용해 이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경북 상주尙州 출신의 황옥 경부는 전부터 김시현과 지기知己의 사이로 이미 모스크바약소민족대회 참석자들의 국경통과 여행권을 협조받은 바가 있었다. 김시현은 서울의 황옥에게 먼저 전보를 쳤다. 직접 천진으로 탐문수사를 오면 1월 12일 종로경찰서 폭파사건에 쓴 폭탄의 출처와 그 소굴을 찾아 범인을 일망타진하는 데 협조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김상옥 사건으로 발칵 뒤집혀 있던 일본 경찰의 경기도경은 황옥 경부에게 부하 1인을 붙여 중국 천진으로의 비밀 출장을 명했고 황옥은 서울에 잠입해 들어온 김시현에게 국경통과 여행증을 만들어 주었다. 김시현은 그 증을 가지고 황옥과 함께 서울 남대문역南大門驛에서 기차를 탔다. 개성에서 그 기차에 황옥 경부의 동행부하로 일인 하시모토橋本 경부가 타 합류하였다. 하시모토 경부는 황옥과 절친한 사이로서 인간성이 무사태평주의인데다 술이라면 만사가 좋다는 호주가였다. 마침 개성경찰서에 있던 그가 흔쾌히 황옥의 대동 천진행에 응했는데 그는 이러한 탐문수사 출장여행이 즐거운데다 황옥 경부의 지시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터였다. 조선총독부 고등경찰복에 일본도를 찬 현직 경부가 두 사람인 일행은 평양과 신의주를 지나고 압록강을 건너 거리낌없이 천진에 도착하였다.

천진에 도착해 불란서조계租界의 중국 여관에 숙소를 정한 일행은 우선 여독과 회포를 풀 겸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먼저 취한 하시모토 경부에게 미희美姬를 붙여 여관방에 묶어 두었다. 그리고 황옥은 경부 정복을 입은 채로 김시현과 함께 의열단 김원봉 단장이 마련하는 초청연에 참석했다. 주인석에는 상해임시정부 외무차장外務次長 장건상張建相、김시현、김원봉과 여자 현계옥玄桂玉 등 독립혁명자들이 순서대로 열좌하고 주빈석에는 정장의 황옥 경부가 앉았다. 이 무렵 의열단이라면 일제관헌이 해내외를 막론하고 말만 들어도 몸서리치며 타진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러한 시국에 중국의 천진땅이라고는 하지만 일제 관헌의 고등관 현직 경부가 의열단의 수뇌간부들과 한자리 연회를 벌이게 되었으니 기상천외의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황옥은 일경의 고등계에 침투해 있는 독립운동자와 같은 신분이었고 이윽고 이때의 거사로 세칭된 '황옥경부폭탄사건'의 주범으로 체포되어 기왕의 독립운동 사실도 탄로나 악형 끝에 10년 징역에 처해졌다. 그리고 해방 후 황옥은 1947년에 잠시 '경무총감警務摠監'이라는 경찰총수직에 있었다는 설도 있으나 그 사망시기와 만년의 행적 등이 확인되어 드러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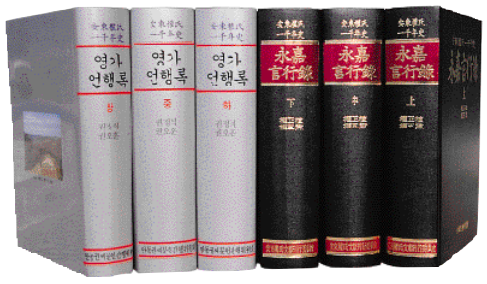
그리고 1919년 3、1운동 후에 만주 길림吉林에서 창립된 의열단은 항일급진 독립운동단체로서 일정한 근거지를 두지 않고 있었으나 그 주근거지는 북경北京이었고 목숨보다 그 비밀을 더 엄수하며 파괴와 암살이 주행동강령이었다. 1920년부터 적기관 파괴와 일제 중요인물 처단의 핵심계획을 실행하여 진영進永과 밀양密陽에 폭탄을 반입하고, 그해 9월에는 부산경찰서장 폭살 의거를 행하고 12월에는 밀양경찰서에 투탄하였다. 1922년에는 조선총독부에 투탄하고 1922년 3월에는 상해上海에서 일본군 다나까田中 대장大將 저격 거사가 연속되었다. 이어 1922년 후반에도 국내에 요원을 파견하여 거사를 계속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운 의열단으로서는 그 작전에 소요될 폭탄과 권총 등 무기를 반입시키는 일이 긴요했다. 상해에서 무기를 마련하더라도 이를 국내로 안전 운송하는 게 너무도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 이를 담당할 인물로 서울에서 무산자동맹無産者同盟을 이끌던 김한金瀚이 지목되고 의열단은 1922년 6월 최용덕崔用德、이종암李鍾岩(일명 양건호梁健浩)을 파견하여 김한과 접선케 했다. 그리고 7월에는 김원봉과 장건상이 김시현을 또 잠입시켜 이들과 연계케 했다. 그럴 때 김한이 일경에 검거되는 바람에 의열단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되고 이제는 그 대안으로서 김시현이 그 임무를 맡게 되었던 것이다. 김시현은 그 난제를 풀 연결고리로 황옥 경부를 선택했다. 이는 그 전해 10월에 극동민족대회에 파견될 대표로 선정되었을 때 통행증과 여비까지 도와줄 정도였으니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김시현은 1922년 9월 22일에 황옥에게 의열단의 국내 거사 계획을 말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김시현도 뒤에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 재판시의 법정에서도 '본인은 황옥의 덕택으로 체포를 면할 수 있었고 또 동지들도 그로 인하여 크게 편의를 보았으므로 황옥이 동지 가운데 한사람임을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진술할 정도로 황옥을 깊이 신임하고 있었다. 또한 백윤화白允和에게 판사 군자금을 강요하던 김지섭金祉燮이 쫓기게 되자 황옥이 상해에서 열리는 국민대표회의 내용을 탐지한다는 명목으로 김지섭에게 변성명의 여권을 만들어 주어 상해로 밀파하기도 하였다. 김시현이 이처럼 신임하는 황옥을 이용한다는 계획은 1922년 12월말에 상해 임정에 알려졌고, 임정의 장건상은 이현준李賢俊을 서울로 파견하여 김시현이 황옥을 데리고 천진에 올 것을 요구했다. 이는 무기가 모두 준비되었으니 천진으로 와 인수해 가라는 지령이기도 하였다. 1923년 2월초에 김시현은 미리 신의주 건너의 안동현安東縣을 답사하고 폭탄 중계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황옥은 마침 상해에서 열리고 있는 국민대표대회를 탐문하고 오리무중이던 김상옥金相玉의 종로경찰서투탄사건의 정보를 수집한다는 명분으로 출장허가를 받아 천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때 황옥은 서울에서 백윤화 판사에게 군자금을 요구하다 검거 직전에 놓여 있던 유석현劉錫鉉을 수하의 밀정密偵으로 조작하여 동행하였다는 사실도 후일 유석현 본인의 언론 회견으로 밝혀지고 있다. <權五焄>

인터넷홈페이지 제작전문
홍보형 · 기업형 · 쇼핑몰
ES정보네트워크
WWW.CONWEB.CO.KR
Conweb
대표權重穆
서울광진구구의3동테크노마트25층3호
전화: 02)3424 - 3992 · 016 - 9309 - 1483

오늘날 貴宅은 家庭敎育에 自信이 있습니까? 이 책은 우리 權門의 庭訓을 代行하고자 나왔습니다.

安東權氏一千年史
永嘉言行錄

權正植 · 權五焄
叔姪兩代 30년에 걸쳐 刻苦로 이루어진
韓國은 물론 세계初有의 紀傳體氏族全史
全3卷 20만원



一擧에 망라 照明되는 安東權氏 1천년의 長江大河 파노라마 !
始祖 太師公에서부터 秋淵權 公에
이르기 까지 1816인 顯祖의 實記列傳 집대성 !
難解하기 그지없는先祖의
詩文과金石文 · 狀記文등의 완벽한 國譯과
총 3270여 면, 원색 사진판 424면에
원고지 2만여 장의 내용으로
인쇄출판문화의 첨단기술을총동원한 최고급 寶藏本

安東權氏宗報社 서울分社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8-1
전화(02)723-4480